ECHO

Fall in Autumn

'가을 속 가을'
'가을에 빠지다'
'우리의 가을을 제대로 즐겨보자'

18
2018.SEPT

ECHO

vol.18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ung hae

편집위원장

우혜정 Woo hye jung

부편집위원장

김나영 Kim na young

편집위원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손민경 Son min kyeong
Editor – 김윤지 Kim yoon ji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Design – 이다혜 Lee da hye
Design – 전명주 Jeon myeong ju
Photo Editor – 이경연 Lee kyeong yeon

VOL18 CONTENTS :

E

06 이달의 주의자_VOL.18

ECHO의 이야기

C

11 매너리즘 설명서

우리는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진다

13 달을 좋아하는 너에게

14 우린 결코 메마르지 않았음을

'여기에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16 : 세미콜론

H

18 해리의 귀환

21 ECHOPATCH

우리과 유투버

25 추석 좋아 vs 추석 싫어

O

27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는 이렇게

- 귀성길 막히는 차안, 기차 안에서 시간 때우기
- 친척들 잔소리 퇴치법

29 Better than book

31 한식, 중식, 일식 그 중 제일은 마음의 양식

33 독서 MBTI

35 수고했어요. 2018 아시안게임 축구

36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_조별과제 편

38 카페 핫플 도장 깨기

40 바람이 불어오는 곳

42 당신의 페이스메이커는

43 GET READY WITH ECHO

- take care home care
- 과한 무늬와 그렇지 못한 태도

47 현상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높아진 하늘과
아무도 모르게 핀 코스모스들을
통해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이 떠나기 전
마음속 깊이
가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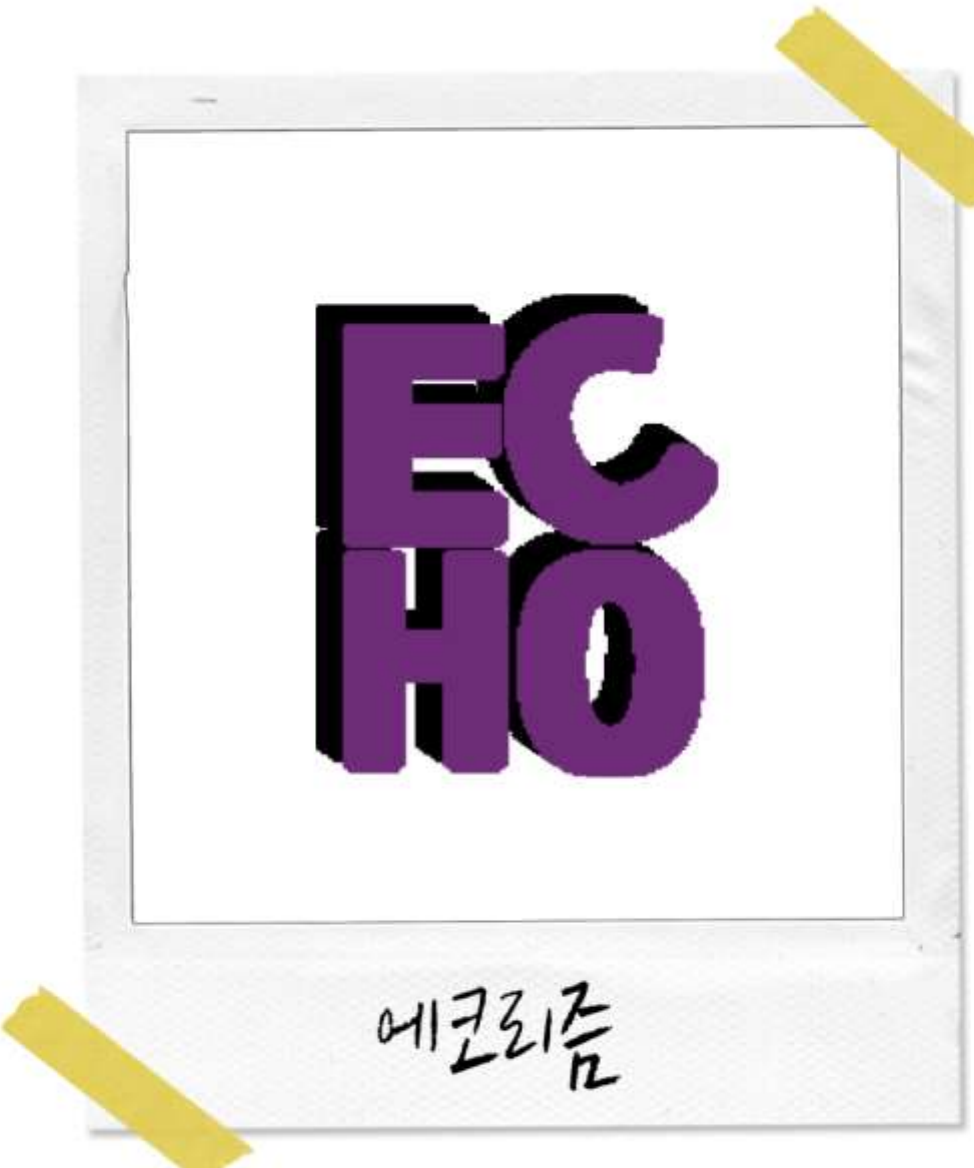
engaging

Editor 김가희 rlarkgmlek@naver.com (글_ECHO)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이달의 주의자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이달의 ISM人

VOL.18



Editor 김가희 rlarkgml64@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18호의 이달의 주의자는
에코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디자인팀과 에디터 팀 그리고 포토에디터 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9월, 이달의 주의자에 담아보았습니다.
에코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봐주세요!"

혜정 Editor

안녕하세요. 에코 편집장을 맡은 17학번 우혜정입니다! 처음 제가 에코에 들어온 이유는 저의 꿈이 에디터였고 선배님들의 발표가 너무 좋아서 선배들과 꼭 같이 에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코를 하면서 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저의 역할은 에디터 팀과 디자인팀의 작품을 잘 배열해서 발간하는 게 아닐까요?! 에코를 해오면서 '고양이는 항상 집사들을 예의주시한다.'라는 글이 제 마음에 원톱이라고 생각해요! 첫 글이기도 했고, 저희 집고양이 이야기를 담아서 더 애착이 가는 글인 것 같아요!

나영 Editor

처음엔 창간 멤버로 있던 제 동기 유미의 입바람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저의 불안함으로 에코에 무작정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막상 에코를 시작하고 보니 저는 글 쓰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부턴 열심히 열심히 계속 글을 써보니 어느새 전 '나름 감성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기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울과 한낱 감정 기복이 글로써 독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늘 감회가 새로워요. 글은 쓸수록 조금씩, 작은 티끌 나마 점차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에디터님들은 어떤 걸 뽑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 쓴 글은 최근의 저의 글이에요. 이번 호에 실리는 저의 글 중 "우린 결코 메마르지 않았음을" 을 아무쪼록 잘 읽어주세요. :)

고은 Editor

17살, 생기가 없어 보인다며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틴트가 제 인생 첫 화장품이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도 '이 빨간 게 뭐길래 다들 저렇게 열심히 바르지?'라는 생각뿐.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고 꾸역꾸역 틴트 한 통을 다 쓰는데 장장 1년이 걸렸던 저는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교 졸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놓은 제품이 너무 많아 틴트 한 통을 다 쓰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코덕이 되었습니다. 덕업일치를 이루려 뷰티업계 종사자가 되고 싶은 저는 에코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온 편이라 기존에 있던 에코 멤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아마 에코에서 제 존재는 어리숙한 조교 선배이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글 잘 쓰는 멋진 선배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감성을 담은 글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딱딱하게 정보 전달 위주의 글을 쓰던 제가 감성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글 중에 12호 연말정산 'All about 학술제'에서 선배들과의 멘토링 후기 기사를 맡았었는데 그 글의 마지막 문구에 애착이 많이 가요. 제 나름대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짧고 별거 없지만 정리가 잘 된 문구라고 생각해요. '선배들은 말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출발한 것뿐이고 항상 너희들과 같은 길 위에 있으니 인생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언제든지 뒤쫓아오라고.'

가희 Editor

처음에 선배들이 만드신 창간호를 보고 잡지를 만든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무작정 들고있어요. 그리고 에디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나도 한번 잡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과연 나도 선배들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 같아 에코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에코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에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역할인 거 같아요. 다 같이 피드백도 하고 다른 에디터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아직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에코를 하면서 좀 더 글 쓰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고 남에게 나의 글을 보여준다는 점이 옛날에 부끄러웠지만 괜찮아진 거 같아요!

이때까지 쓴 글 중에 제가 생각하는 나의 원톱 글은 12호에 있는 'Good Bye COMM.ON' 글이에요. 인터뷰 글이라서 답변을 받아서 정리한 거 밖에 없지만 같이 집행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일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고 지금 다시 보면 작년 한 해를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게 해주는 글이라서 저의 원톱 글이에요!

유나 Editor

저는 에코에 작년 개강 컨퍼런스 때 14 이승민 선배와 14 조은진 선배의 에코에 대한 소개 발표를 듣고 '아! 저거다!'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과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에코를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되었고 누군가 나에게 "너는 에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수정하는 에디터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에코는 한 달에 회의를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회의는 주제와 콘텐츠를 정하고 두 번째 회의는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두 번째 회의 가면 고쳐야 할 부분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은 열심히 수정하고 성장하고 있는 에디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의 에디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뽑자면 저는 '새내기들의 연휴 보내는 방법'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너의 이야기를 에코에 싣고 싶어. 그래서 글 좀 부탁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3명의 학우들에게 글을 받아 내가 정리한 글인데 이 글을 원톱으로 뽑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글을 처음 받아 보아서 그런지 뭔가 뿌듯했기 때문에 나는 '새내기들의 연휴 보내는 방법'을 나의 최애 글이자 원톱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 Editor

원래부터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매월 발행하는 에코를 독자로서 읽으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지금 에코에서 제 역할은 아마도... 글 쓰는 사람 1.. 이랑 맞춤법 검사기(?) 제가 맞춤법에 강박증 있거든요 에코에 들어와서 쓴 글 중에 제 원톱 글은 아무래도 제일 반응 좋았던 15호의 '오이 싫어!'!! 쓰는 내내 재밌었고 오이가 더 싫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지 Editor

개강 컨퍼런스에서 에코가 소개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별생각 없이 지원했습니다. 에코에서 저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글을 써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역할에 비해 배워가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제 글 중 '소소한 여유'라는 글을 좋아합니다! 원톱이라기보다는 처음 쓴 글이라 좀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정 Designer

잡지에 관심이 생기고 디자인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코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에코를 하면서 저는 항상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는데 제 생각이 가는 데로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디자인 중에 원톱은 어른이 날 시리즈-선물 편인 것 같아요.

다혜 Designer

안녕하세요. 에코 디자인팀 이다혜입니다.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던 차에 학과 내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경험해볼 수 있는 에코 웹진에 자연스레 도전하게 됐어요. 에코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주로 몇 개의 글을 맡아서 웹진 한 페이지 페이지를 디자인해요. 보통 잡지라고 하면 레이아웃만 잘 설정해서 디자인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저는 일러스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원톱 디자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에 맡았던 '소확싫'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명주 Designer

ECHO에서 디자인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처음 에코를 접하게 된 계기는 개강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시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요. 그저 포토샵을 할 줄 아는 나에게 에코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진행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디자인팀 막내인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디자인 중에 내 원톱을 뽑으라면 17호에 수록된 '40도라니 여름아'를 고르고 싶습니다. 다른 디자인도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가장 잘 표현해낸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수업만 들을 수도 있지만, 에코를 하면서 선배들과 동기와 같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호가 발간될 때마다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디자인팀의 역할을 해내고 싶어요!

경연 photographer

처음 에코 '포토에디터'를 뽑는 모집 공지를 보고 ' 아! 이건 내 일이야'라고 생각이 들었고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고민하지 않고 에코에 들어오게 됐죠. 에코에서의 제 역할은 크진 않지만 매달 콘셉트에 맞춰 사진을 촬영하고 커버를 장식하는! 소소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 주제로 발간한 에코 15호가 가장 인상 깊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고생하며 모델들과 에디터와 함께 촬영하고 그만큼 좋은 사진, 좋은 커버가 나와줘서 더욱 의미가 깊은 거 같아요.

ECHO

C

communicating

Editor 손민경 heloime@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5724@naver.com

매너리즘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타성'과 같은 말.

우리는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됐건 간에 사람이라면 언젠간 반드시 겪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매너리즘이 찾아왔거나 아직 오지 않은, 혹은 이미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다. 무사히 지나갔다면 다행이지만 또 언젠가는 당신을 주저앉힐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 현상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설명서를 첨부하려 한다.

Editor 손민경 heloime@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5724@naver.com

당신을 위한

매너리즘 설명서

※유의사항: 매너리즘이다 싶으면 꺼내보세요

『 Part 1. - 매너리즘의 폐해 』

흔히들 매너리즘에 빠지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사는 게 지루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지금 왜 사는 거지?' 등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을 자책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점까지 수면 위로 끌어내 자기 비하를 시작한다. 내가 지금 살기 싫고, 모든 게 시시하고 지루한 것이 결국은 전부 내 탓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한 번 시작되면서 끝도 없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이게 정말 온전히 나의 탓일까?

『 Part 2. - [주의] 매너리즘 취약자 』

매너리즘의 정의에 따르면 항상 틀에 박힌 채로 살다가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대학교 2학년과 (대 2병이라고도 한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겨울철 감기처럼 불쑥, 쉽게 찾아온다고 한다. 매너리즘이 발생하기 딱 좋은 최적의 상황들을 갖춘 사람들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때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비하를 시작하며 대학생의 경우는 견디지 못하고 휴학, 또는 자퇴를 결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일까?

『Part 3. -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계도 언젠가는 망가진다. 그 좋은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때가 되면 멈춘다. 하물며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즐겁고 신선함이 가득할 수는 없다. 사실 모두가 알지만 당신에게는 누구도 해주지 않았을 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살면서 기쁠 일보다 지칠 일이 더 많을 테고 당신은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계속되는 매너리즘의 바다에 풍덩 빠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당신을 밀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Part 4. - '진짜' 매너리즘 활용법』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시기지만 잠시 쉬어가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을 나쁜 의미로 변색 시킨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매너리즘을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자책할 필요 없이 그저 마음 놓고 쉬어가면 된다. 당신을 괴롭히던 매너리즘이 이제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 평소의 당신과 달리 천천히 가다 보면 분명 빠르게 헤쳐나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물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 선물이 어떤 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당신의 출발에 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 더 이상 누구도 매너리즘 앞에서 주저앉지 않길 바라며, 매너리즘 취약자가 -

Editor 공유 | kkyuna33@naver.com | Designer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달을 좋아하는 너에게

우리는 모두 밤하늘의 같은 달을 본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달보단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사람들의 얼굴보단 고개를 들어 달을 더 많이 볼 때가 있다.
보통 우리가 달을 자주 볼 땐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심코 달을 쳐다봐 하늘을 본다.
그 달을 보고 그리워하고 원망 섞인 말이나 사랑의 말도 해봤을 것이다.
달을 좋아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달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가끔 어렸을 적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인형을 잡고 작은 얼굴에 눈물을
또르륵 흘리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그 인형이 달이
되었기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달에게 너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겠지. 언제가 되어도 달은 항상 하늘에 예쁘게
떠있을 것이다. 네가 힘들 때도 , 좋을 때도 ..

Editor 김나영 rlaskdud112@naver.com | Designer 우혜정 dngwjd17@gmail.com

우린 결코 메마르지 않았음을

작년 가을, 그는 나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놓곤 사라졌다.

'여기에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일 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메시지를 켜놓은 채 곱씹는다. 내가 언제고 그와 함께 뱉었던 수많은
넋두리에 대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 뱉었던 것들을 차마 주워담지도 못해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마른 웃음 터트리던 수많은 밤에 대하여.

그와 나에겐 각자의 하느님과 판타지아가 존재했다. 나에겐 지쳐 쓰러질 때쯤 마시는 차가운 커피가 하느님이고,
간밤에 몰아치듯 혼자서 영화를 보는 순간이 판타지아다. 그에겐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타인의 웃음이 하느님이고,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가만히 누워 시집을 읽는 순간이 판타지아다. 언제고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랬다.
그것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버티고, 죽지 못해 내일을 맞이했다.

'메말랐어. 허무해. 내 삶은 딱 이 두 문장으로 끝나버려.'

차가운 맥주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흘러내려 플라스틱 테이블을 흥건하게 만든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그의 우울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인 물을 성의 없이 검지로 훑어냈다. 나도 안다. 지독하게 메마르고, 어이없을 만큼 허무해서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이 반복되는 매일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것. 매일 반복되는 우울감과 히스테릭이 나로도 모자라 주변까지 검게 물들여 버린다는 것.
죽을 용기도, 살아갈 힘도 없어 버티기만 하는 매일에, 각자의 하느님을 동아줄 삼아 매달려있는 이 현실이 지독하게도 같아서
그와 내가, 혹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럴 것으로 생각되니 턱, 하고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다

Editor 강나영 rlaskdud112@naver.com | Designer 우혜정 dngwjd17@gmail.com

언제고 코끝이 시릴 만큼 바람이 차가워졌을 때, 가로등 불빛이 전보다 탁해진 골목길엔 인적이 드물어 그와 나의 대화 소리와 각기 다른 박자로 움직이는 발소리만 가득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는 익숙했다. 그는 지난밤 읽은 책의 찬란한 구절과 똥 같은 구절을 말했고, 나는 새벽에 본 비급정서 가득한 영화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우린, 그럼에도 내 마음을 건드린 1초의 감동은 존재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한동안 걷기만 했다. 열 발자국을 걸으면 모퉁이가 나오고, 그 모퉁이를 돌면 그의 집이다. 그리고 그는 골목 구석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젯밤에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했어. 난 지금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한 걸음엔 동의를, 한 걸음엔 한숨을 내비쳤다. 그렇게 말없이 걷다 보니 모퉁이가 나왔다. 우린 서로의 집 앞까진 가지 않는다. 그저 겹치는 길만 동행할 뿐이다. 짧게 눈을 마주치곤 내가 먼저 돌아섰다. 그리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열대야에 못 이겨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만난 여름밤, 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의 어릴 적 꿈은 파일럿이었다고. 하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멋져 보여서 결심했었다고.
그러나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TV 뉴스 속보에 비행기 추락사가 온종일 나오는 것에 겁을 먹어 포기했다고.
그리고 그 뒤엔 수차례 꿈이 바뀌었다고 했다. 힘없는 너털웃음만 한동안 짓다, 텁텁해진 입안을 쓸며 그는 말했다.
그땐, 내일이 기대되어 잠을 못 이룬 적이 허다했다고. 지금처럼 오늘이 부끄러워서, 내일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고. 지금은 위안을 얻고자, 살아보고자 어두운 밤 책을 읽어내려 가지만, 그땐 정말 좋아서 온종일 책을 붙들고 살았었다고 했다.

'메말랐어. 허무해. 내 삶은 딱 이 두 문장으로 끝나버려.'

곱씹는다. 우리가 나눈 대화들, 주워담지 못할 만큼 뱉었던 수많은 단어, 문장, 그 속에 섞인 우울감과 공허, 자기비하, 욕, 욕, 수많은 욕, 나와 당신을 한순간에 평가 짓고 가치 매기는 무수한 단어 속 자기경멸, 무시, 그럼에도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찾았던 무수한 것들, 자신의 하느님과 당신의 하느님, 여러 번 뒤 바뀌는 판타지아 속 모순들의 틈에서 나는 기어코 찾아낸다. 그가 자주 뱉던 고문과도 같던 그 말.

'메말랐어.'

나와 당신은 매일 메말라간다. 입안이 버석, 말라져 갈라지고 피부를 쓸면 가루가 흩날릴 만큼 끝없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누군가는 푸른 봄과 같다 하여 청춘이라 함부로 내뱉던 우리의 곪은 이 시간이, 죽을 용기도 살아갈 힘도 없어 죽은 듯이 생명만 이어가는 우리의 내일이, 가엾다고 동정하고 안일하다 욕하는 타인의 손가락질에 생채기 당하는 우리 더는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 떠나간 당신의 뒷모습을 탓하지 않는다. 여기엔 무수한 선택과 미련이 떠도 그중 하나였을 당신을 탓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다. 애석하게도 먼저 돌아섰던 지난밤의 나는 여전히 이곳 커피 한잔을 들고 이젠 대사를 외울 지경에 이른 자주 본 영화 한 편을 재생한다.

Editor 우혜정 dngwjd17@gmail.com | Designer 우혜정 dngwjd17@gmail.com

CONT;NUE

문장을 끝맺지만 끝이 아닌

세미콜론을 처음 보았을 때 이건 어떨 때 사용해야 적절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세미콜론의 의미를 알았을 때 흥미로운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문장을 끝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만능 기호였다.
나는 왠지 세미콜론의 의미가 마음에 들었다.

삶 속에서 끝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힘이 들고 지치게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미콜론이 아닐까?
잠깐 끝맺음을 짓고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가져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언젠간 다시 시작 할 수 있으니. 시작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끝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다. 무언가 시작했을 때 결과에 집착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쓴 좌절의 맛을 맛본다. 그런 삶은 우리를 더욱 피폐하게 할뿐이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여유가 없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아닐 것이다. 우린 조금 여유를 부려도 괜찮다.

우리의 삶은 세미콜론처럼 다시 시작 할 수 있으니까

H

hosting

Editor 손민경 helloime@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해리의 귀환

Q. 해리, 1년만에 뵙는데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미국 애들 노래 중에 '홈 스위트 홈' 이라는 노래가 있어. 집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 '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보다 강렬하게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다시 찾아서 너무 좋아. 또 내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더 좋다.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면에서 여길 돌아오니까 학과장도 하게 되고. 남들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재밌어. 어쨌든 할 일이 많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라운 게 너네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훨씬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지? 요즘은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랑 재밌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결론은 현실에 좀 더 강렬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Q. 아직 해리에 대해 잘 모를 18학번 학생들을 위해 짧게 해리를 소개한다면?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뭐든지 안 하는 거보다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 또 생활하는 건 단순해서 예측 가능하고 스스로가 머리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겁을 안 먹는다. 그래서 닥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정도?

Q. 미국에 계신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으신 일이 뭔가요?

지난 20년 동안 고민했던 일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는 게 제일 크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아마 12월달에 나올 거야. 어쨌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고, 외환 위기 이후에 유학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미국 가서 세상을 다시 배운 것, 또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쭉 경험했던 걸 이번에 다시 미국에 가서 확인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고,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Editor 손민경 helloime@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Q. 해리가 우리 과 학우들에게 지금 가장 바라는 건 어떤 건가요?

꿈은 원대하게, 삶은 겸손하게, 잔은 평등하게. 이게 되게 압축적이야. 우리 과 애들은 그 잠깐 와서 느낀 게 꿈이 너무 없어.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그런 게 왜 필요해요?' 라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꿈은 일종의 생기야. 사람이 뭔가 즐거움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살아있는 기운이 없으면 시체야. 그래서 술자리가 됐건 어디가 됐건 꿈은 원대하게 를 하루 한 번 이상은 외쳐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꿈이 원대하면 자기 삶에 대해 겸손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마라톤을 하거나 에베레스트를 올라갈거면 자잘한 걸로 안 싸우거든. 안 그래? 거 피곤하게 옆의 사람이랑 왜 싸워, 할 일 많은데. 그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인 거지. 꿈이 간소하니까 삶도 팍팍한 거야. 대신에 꿈이 원대하면 삶도 되게 여유로워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그게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거고. 잔은 평등하다는 건 해리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즐기라는 뜻이지. 수업 시간에도 마음껏 질러보고, 좀 틀리면 어때? 주말이 되면 여행도 좀 가보고. 근데 잔을 평등하게 하는 것 조차도 잘 못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저 선배 눈치보고 후배 눈치보고.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지. 해리가 좋아하는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처럼

Q. 이번에 학과장이 되셨는데 해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 조금만 소개 부탁드려요.

첫째는 현장 실습을 많이 늘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많이 부를 생각이야. 당장 이번 11월 학술제, 집단지성, 내년 홈커밍데이. 그 전체를 다 선배들하고 함께 하는 컨셉으로 갈거야. 서울가서도 그렇고 학술제도 잘났던 못났던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는 선배들이니까 와서 자신들의 대학생활, 현장에서 돌아봤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걸 자주 나누도록. 근데 이제까지 잘 안 됐던 이유가 분야가 너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학술제나 서울 집단지성도 분야별로 나눠서 소규모 방에서 얘기하고 술도 한 잔 하고 산책도 하려고. 그게 해리의 컨셉이고 하나 더, 해리는 어쨌든 너네가 경쟁력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봐. 방법은 두가지밖에 없어. 지금 이대로 어중간한 대학생으로 상태로 나갈 거냐, 그건 레드 오션이야. 답이 안 나와. 그럴 바에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일찍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현장 취업이나 인턴으로 가라고 권하는 거지.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는 대학원 과정이야. 그 이야기를 꼭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일부에서는 애들이 대학원이 교수들한테나 좋지, 자기들한테는 좋은 게 없다는 얘긴데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이야. 첫째, 교수들도 좋아.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대학원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실제로. 그 다음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계속 써야 하니까 대학원생들이 많으면 논문도 같이 쓰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학회 가면 도움도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네들한테는 마이너스냐,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성 게임처럼 보이는 것들을 서로가 노력해서 윈윈해서 파지티브 섬으로 만들어가는 게 인생의 묘미인 거야. 대학원이란 건 그런 의미인거지.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일부는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대학을 간다고 했는데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가서 너희가 이만한 선생님들을 만날 거야? 라는 거. 대구대학에 들어오는 커트라인이 낮아서 그렇지, 교수님들이 낮은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장학금도 받고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으니까 훨씬 더 밀착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서울대 연구원처럼 인원도 많으면 대학원생인지 학부생인지도 몰라. 그런 의미에서 윈윈할 수 있지.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할 점 얘기해주세요!

첫째, 항상 긍정적일 것. 긍정적이 된다는 건 막연한 낙관하고는 달라. 긍정적이려면 끝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해. 왜냐하면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면이 많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면 먼지가 앉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딱지가 앉는 거야. 먼지가 앉기 전에 우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닦아야 하잖아. 그것처럼 내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평가, 부끄러운 이야기, 부족한 점들을 성찰해줘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읽을 책을 다 못 읽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면 꾸지람 들은 것 자체를 놔두지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밑거름이 되도록 닦아내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물에 비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런 과정이 축적이 되어야지 진정한 긍정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끝없이 밀어내고 잡생각이 네 머리를 지배하도록 두지마. 또, 나한테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도록 노력해라.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하루에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 그걸 아무생각없이 지나면 평범한 하루가 되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하면 의미있는 날이 되지. 마지막으로 시나 소설을 읽어라. 최소한 너네들이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할 수밖에 없는 집단 정서를 알아야 하는데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을 보면 옛날 영화는 옛날거라 안 보고 요즘 거는 헐리우드밖에 안 보잖아. 문제는 너네가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너희와 같은 걸 안 볼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결국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그런 상징물들을 본 사람들인거니까. 소설이라는 건 결국은 대중적으로 가장 다수가 생각하는 바를 문학이란 형태로 표현해서 드러낸 거니까 가능하면 너무 가벼운 소설책들 말고 객주 같은 작품이나 조정래 작가 같은 엄청난 사람이 많으니 그 작품들을 읽어봐.

Editor 윤유나 kkyuna33@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l7724@naver.com

Vol 18. 미컴 유튜버들을 파헤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접하는 플랫폼은 '유튜브'일 것이다.
이 사이트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 라고 칭한다.

모든 궁금증에는 에코가 있습니다.
실오라기 없이 파헤칠 *에코패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유튜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도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재 유튜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김소연 학우와 이태욱 학우를 만나보았다.

나나의 성장일기/ 우키TV

ECHO
Editor 공유나 kkyuna33@naver.com | Designer 이다희 rkdi7724@naver.com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김소연이며,
'니니의 성장일기'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니니'로 활동 중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니니 | 니니의 성장일기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나요?

제가 주로 만드는 콘텐츠는 일상 Vlog콘텐츠예요.
뷰티를 가장 하고 싶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니제가 화장을 잘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유튜버를 하면서 재밌거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유튜버를 하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공감하면서 댓글도 달아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 만들고 밤새도 좋아요, 댓글이나 조회 수를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업로드를 해야 해서 매일 촬영과 편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자주 밤을 새거나 콘텐츠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니니의 성장일기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예전부터 굉장히 유튜버를 꿈꿔왔는데, 아마 고등학생 2학년부터였어요. 그 때 씬님, 라뮤끄님 등등 많은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니니의 성장일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음, 제가 꼭 하고 싶은 콘텐츠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일단 라이브를 방송을 가장 해보고 싶고,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알바 Vlog 영상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저로서 굉장히 뿌듯한 영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ECHO
Editor 공유나 (kyuna33@naver.com) | Designer 이다혜 (eid7724@naver.com)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편집부차장(TMI인가요? ㅋㅋ) 이태욱입니다!

이번 2018 경상북도 1인 미디어 글로벌 크리에이터 창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운이 좋게도 발탁되어 처음 60명에서 면접으로 40명, 그리고 탑 20까지 합격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탑 10은 떨어졌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12월까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우기 | 우기TV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콘텐츠에 따라 채널의 색깔과 추후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여행지나 행사장, 페스티벌 등을 방문하여 리뷰나 꿀팁을 전해주는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데, 추후 시사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콘텐츠와 라이브로 신청해주시는 음악을 절대음감으로 연주하는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기 TV'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방송인이 꿈이지만, 좋아하는 것이 음악과 여행이라 직접 여행가서 피아노 즉흥곡을 하나 만들고, 여행가서 촬영한 영상으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유튜버를 하면서 **재밌거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저는 크리에이터 창업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때가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우선 정말 한분도 빠짐없이 함께 활동하는 분들 모두 각자 색깔도 너무 뚜렷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배울 점도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40살 형 같은 아저씨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경산, 대구부터 서울까지 다양한 곳에서 많은 지원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처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정확히 나의 색깔과 특성을 개성 있게 살려 내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편집할 때도 좀 더 고퀄리티, 혹은 재미있는 편집점을 찾는 부분과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업로드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나나의 성장일기 / 우기TV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니니

유튜버는 시작이 반이니까 먼저 출발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채널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거면 유튜브 정말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 주위 사람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우기

우선 취미로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잠깐 연구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본인의 색깔과 컨텐츠에 따라 성공의 유무가 갈립니다.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집이 아주 간단하고 심지어 얼굴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인기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많습니다.
모두 콘텐츠가 좌우합니다. 본인의 색깔과 잘하는 것을 살려서 좋은 콘텐츠 생각해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크리에이터 시장은 벌써 레드오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시장을 꼭 염두 해 두고 시작하시길 바라요. 시작부터 해외 시장을 노리고 달려드는 한국 분들은 정말 뜨는 스케일부터 다른 걸 직접 활동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적인 부분에 생각보다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크리에이터답게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보시고 당연히 진입장벽 높지 않습니다. 간단한 편집능력이라도 콘텐츠만 좋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 유튜버, 스타 유튜버 평균 월 억대 수입, 다양한 방송국과 해외 언론사들의 유튜브 진출 등 유튜브는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이며, 세계에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당당히 탈바꿈했습니다.
구글의 끊임없는 연구와 구글 만의 알고리즘, 그리고 강력한 저작권 및 법적 보호로 인해 더욱 클린하고 유익하며 어느 TV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공감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새로이 성장하고 있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알고 한번쯤은 직접 콘텐츠도 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니니의 성장일기/ 우기TV

ECHO
Editor 김윤지 99dbswl@naver.com | Designer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추석 싫어 vs 추석 좋아

매년 두 번씩 찾아오는 명절 중, 이번 달은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 추석은 24일로 주말을 포함하면 5일의 연휴가 주어지는데요.
어릴 땐 마냥 좋기만 했던 명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싫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긴 연휴와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코에서 상반된 두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1.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유세이입니다.
에코에 정식으로 인터뷰 해보는 건 처음이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Q2. 평소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저는 할머니께서 음식 준비를 다 해주시는 편이라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사촌동생들 놀아주기와 해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촌들이 모두 남자들이고 명절 때만 만나서 서로 안 친하다 보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서 할머니께서 항상 잔소리를 하세요...

Q3. 명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은 포항이고 할머니 댁은 서울이어서 이동시간이
길어 피곤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사촌들과 친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크고
다른 남자 사촌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서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만 빼고 방에서 장난치고 놀아서 어릴 땐 몰래 울었던 기억도 있어
요. 그래서 사촌 언니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요!

Q4. 미래에 내 가정이 생긴다면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도 불편함 없이 반갑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는 사촌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커요. 저는 초등학생 때 명절에
할머니 댁 가지 말자고 부모님께 울고 떼 쓴 적도 있을 많큼 명절을 좋아하
지 않아서 제 미래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길 노력하려고요!

Q1.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김익명입니다.
제 이름은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Q2. 평소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명절 전날에는 엄마와 함께 전을 부치고,
명절 당일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차례를 지낸 후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또 추석특선영화를 봅니다!

Q3. 명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명절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오랜만에 반가운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용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Q4. 미래에 내 가정이 생긴다면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아마도 미래에는 점점 명절을 간단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 간단하게 지내고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휴식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O

outriching

Editor 김나영 rlaskdud112@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i7724@naver.com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는 이렇게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추석) 연휴! 그럼에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귀성길 이동 시간!**
가까운 거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귀성길, **빠듯하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1. 스도쿠

1				5	2	3			9		5
	5	4	6	8				7		2	
6		3				4	4	1			7
2			5	9	1			7	3	6	2

모바일 게임은 아무래도 데이터 소모와 배터리 소모가 크다. 기나긴 시간을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소모가 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 충전은 용이하다고 해도, 데이터 소모는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는 것. 자고로 두뇌를 소비하면 시곗바늘도 앞당기고 졸음도 앞당길 수 있다. 다양한 스도쿠 게임 중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미리 다운받아 놓는다면, 당신의 귀성길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눈치 주려는 부모님도 잔소리를 멈출 것이다.

2. 음악 플레이리스트 설정

사람이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기나긴 귀성길, 두 가지의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해놓는다면 당신은 조금 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길에 가까워진다. 우선, 빠른 비트나 미디움 템포 위주의 곡들로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익숙하고 지루한 풍경을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보자. 그리고 졸음이 밀려올 때 뉴에이지와 재즈, 발라드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여 잠이 든다면 그야말로 완벽.

3. 인생 영화

인생 영화는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 귀성길이라고 특별히 다를 것 없다. 새로운 영화를 재생했다가 실망하거나, 한눈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영화를 재생시켜놓고 조금 한눈을 팔아도 어려움 없이 읽히고,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눈에 그려지는 것이야말로 지루한 귀성길을 여유로운 귀성길로 탈바꿈시켜줄 것이다.

4. 담요와 목 베개

이동수단에 몸을 맡기는 순간 졸음이 쏟아지는 멀미를 앓는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템을 꼭 준비하길 바란다. 당신의 근육통을 완화해줄 목 베개와 담요의 보송보송한 질감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Editor 김나명 naskdud112@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i7724@naver.com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는 이렇게

그런데 어디 추석이 귀성길만 존재하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귀성길만이 다가 아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틈에서 하나둘 시작되는
걱정을 빙자한 잔소리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해야 한다, 단련!

1. 이어폰과 책 한 권으로 바쁜 척하기

거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한구석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고 있노라면, 언뜻 방문을 열어 당신을 부르려는 친척도 머쓱하게 돌아서 나갈 것이다. 사실상 최상의 방법.

2. 부모님에게 부탁하기

유난히 잔소리가 심한 친척 어른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점을 부모님도 안 좋게 보신다면, 부모님에게 그분이 나에게 시선을 주거나 부르려고 행동을 할 때 다급히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다급한 부름의 예로는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얘, 00아~"로 들 수 있다.

3. 마스크 쓰고 기침하기

아픈 사람에게 말 많이 거는 사람 잘 못 봤다. 조금 파리한 안색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루할 때쯤 기침을 해보자. 반드시 몸은 움츠리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4. 집요하게 나를 찾는 당신에게

명절에 가만히 숨어있노라면 집요하게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어른을 만날 수 있다. 보통, 거실에서부터 나의 이름이 아득히 들려오기 시작하며 곧이어 누군가가 내가 숨어있는 방문을 열고 나를 불러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며 공개 잔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 순간을 버텨내기 위해선 모두가 탁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

'너 다이어트 안 하니? 취업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유, 저도 저지만, 건강 생각 하셔서 뱃살 좀 빼세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

'취업 준비는 잘 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성의 없이) 네네, 그나저나 사업은 잘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파이팅입니다! ^^'

말끝마다 엄지를 쳐억, 하니 들어주는 것 또한 귀엽고 센스 있어 보인다. 그 순간만큼은 격려의 메시지로 들리나, 돌아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쯤 그들도 알겠지.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Better than book?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책은 다시 좋은 재료가 되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영화는 오롯이 글자로 접했을 때 느꼈던 만족을 더 다채롭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래서 더 쉽게 주목받고, 더 혹독한 평가를 받는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7년의 밤_ 지은이 : 정유정

"사람의 행동엔 다 대가가 따르는 거야."

2011년도 발표작 '7년의 밤'은 출간되자마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순의 1위를 차지하고
이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보고 싶은 소설 1위로 꼽히기도 했다.
7년의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복수극이지만 작가는 오랜 자료조사와 인터뷰 등으로 배경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소설의 영화화에 많은 이들은 원작의 서늘한 분위기와 개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렇게 판권이 팔리고 제작에 돌입해 7년만인 2017년에 개봉했다. 아니나 다를까. 원작과 다른 결말,
원작에 비해 너무 개성이 약해진 캐릭터, 원작에 비해 부족한 사건설명.온통 원작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혹평이 쏟아졌고 많은 관객들은 "이렇게 7년의 밤이 저물게 되었다." 라는 평가를 남기며 아쉬워했다.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_ 지은이 : 기욤 뮈소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그 사람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기억만으로도 살아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본 적 있는가?
이 터무니없는 상상이 앨리엇에게 현실이 되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죽게 되는 일리나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다.
독자들은 단순히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느낀 것 뿐 만 아니라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간 이유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나비효과 같은 파장에 가슴아파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원작만큼의 감동과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 받는다.
소설 속 주인공 앨리엇은 영화 속 주인공 수현으로 재탄생해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원작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되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린 것이
영화의 흥행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욕조 가득 받아 놓은 물의 온도가 적당한지는
그 속에 들어 가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책과 영화가 우리에게 세상을 경험시켜주는 방식도 이와 같다.
어떤 온도의 책과 영화인지는
펼쳐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하지만 욕조 속, 문학에 대한 갈증은
온도가 해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빠져들 수 있느냐가 아닐까.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직접 들어가 빠져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Editor 손민경 hellome@naver.com | Designer 우혜정 dngwjd17@gmail.com

한식, 중식, 일식 그 중 제일은 마음의 양식

흔히 말하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 찐다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물론 이상 기후로 인해 이번 가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지만 그렇기에 더욱 가을 기분 낼 뭔가가 필요하다!
트렌치 코트 입고 고독한 척 하기, 자전거 타며 멜로 영화 흉내 내기,
다 필요 없고 가을 보양식 먹기 등 많은 종류의 가을 기분내는 활동들이 있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가을하면 '문학소녀, 소년' 아닐까?
여기, 창가에 걸터 앉아 들고만 있어도 당신을 90년대 영화 속 문학청년으로 만들어 줄 감성적인 책들을 소개해본다.

1. 6 - 성동혁

[우린 오래오래 안녕이지만 / 오래오래 사랑한 기분이 든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가을 특유의 쓸쓸함과 서정적인 느낌을
그대로 빼닮은 작가의 문체 때문에
이 시집을 읽고 덮으면 당신이 가을 그 자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시는 '1226456'.
처음에 적힌 구절도 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일만큼 이 시집의 대표격인 시가 아닐까 싶다.
좀 더 보태자면 이 시 하나를 위해 시집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2. 불온한 검은 피 - 허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노을 앞에서
/ 온갖 구멍 다 틀어막고 사는 일이 얼마나 환장할 일인지]
이 시인또한 필자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아까 시인은 쏠쏠함이 주 장르였다면 이 시인은 먹먹함, 절절함이 주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을 가을의 기운보다 더 깊게 잠식 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로잡을 분위기와 감성은 그 어느 책보다도 강력할 것.
이 책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시는 역시 서두에 적힌 '내가 나비라는 생각'.
모든 구절이 다 좋아 어느 한 부분만 빼오기 어려워 내내 고민했다.

3. 계속해보겠습니다 - 황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 왜 네가 아닌 이 새끼들에게 맞고 있을까.
너여야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너여야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야지.]
이번에는 시집이 아닌 장편 소설책이다. 제목만 보고선 이게 대체 무슨 책이야?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한 번 읽는 순간 흔히 말하는 '현생불가'의 삶을 살지도 모른다.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모든 존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만큼 애써 살아가고 있다.' 였다고 하는데 이 말만 들어도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요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단순 청춘물이라면 어쩜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사랑 이야기도 있으니
분명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한식, 중식, 일식
그 중 제일은 마음의 양식

Editor 김윤지 99dbswl@naver.com | Designer 우혜정 dngwjd17@gmail.com

독서 MBTI

:MBTI: Myers와 Briggs의 Type Indicater(성격유형검사)

9월이 되고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진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낙엽' '독서' '트렌치코트' 등등 많지만,
가을은 역시 독서의 계절인 만큼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책 읽는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노래 없음 책 못 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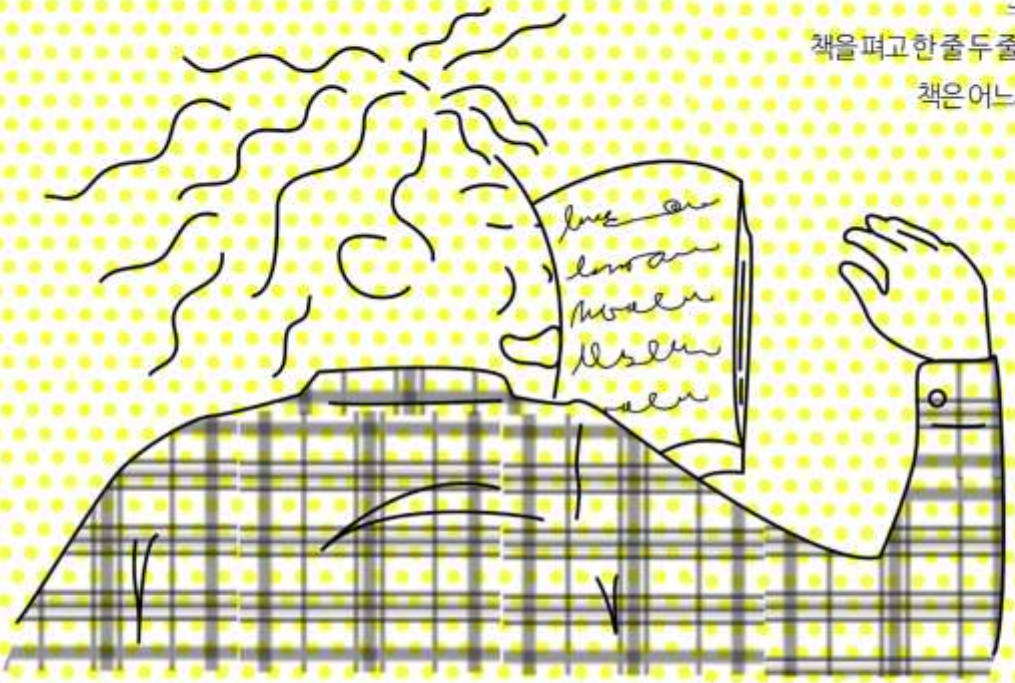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본인 취향의 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책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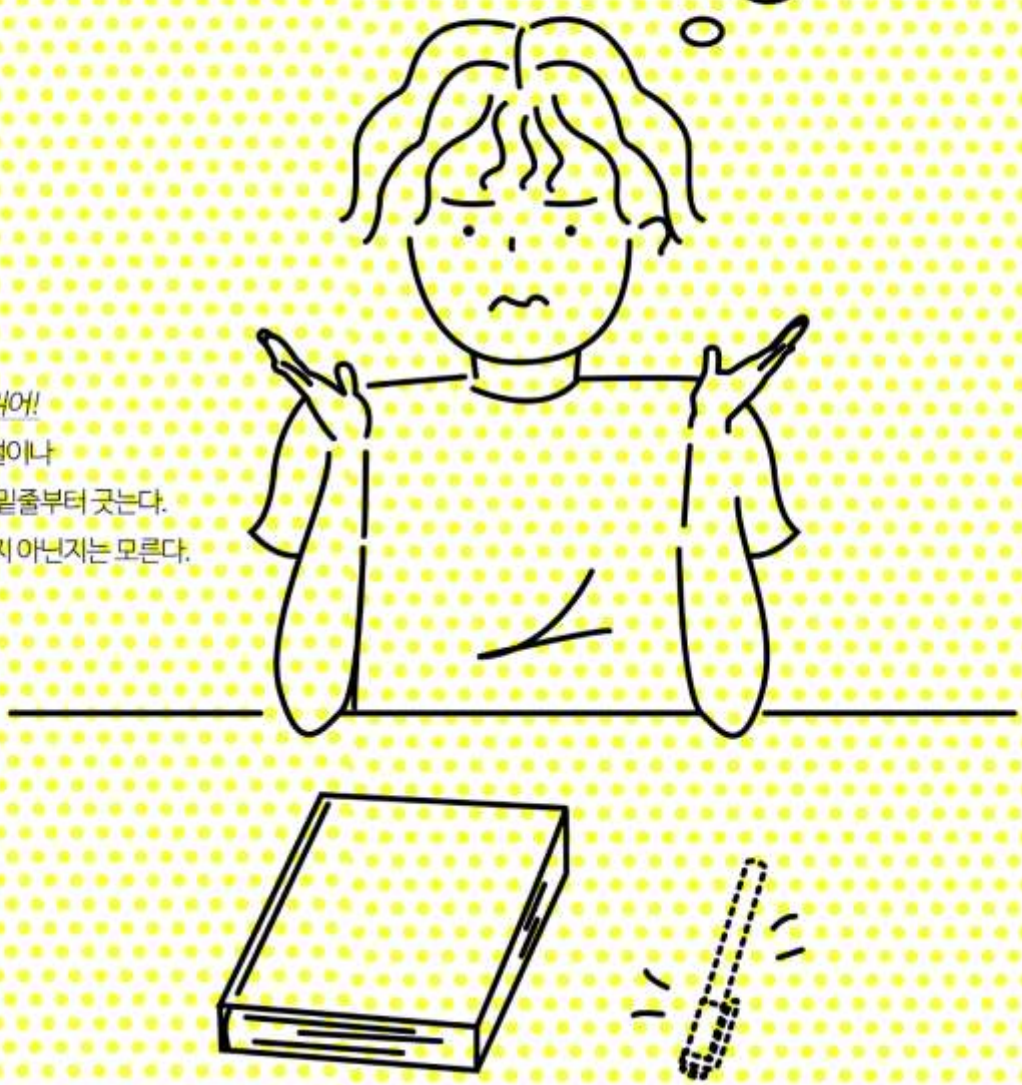
2. 소리나면 책 못 읽어!

노래와 소음은 독서에 방해만 될 뿐,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오직 책에만 집중한다.

3. 책 없음 잠 못 자!

책을 펴고 한 줄 두 줄 읽어내려 가다보면 점점 눈이 감긴다.
책은 어느새 베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펜 없음 책 못 읽어!

기억하고 싶은 구절이나
심금을 울리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부터 긋는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천명주 myeongju0510@naver.com

수고했어요 2018 아시안게임 축구

얼마 전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내며 마무리된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이 한일전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컸고 박항서 신드롬을 등에 업은 베트남과의 경기도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빛나는 결과를 이뤄낸 3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명불허전 흥민갓 손흥민

혹사논란이 생길 정도로 요즘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손흥민은 8월20일 한국 -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득점했습니다. 후반 18분 코너킥 찬스로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발리슛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확정지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시스트를 성공시켜 캡틴의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그의 군면제 확정도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예측불허 물오른 이승우

아시안게임 4강전은 베트남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날의 경기는 이승우의 공에 대한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전반 6분 13초와 후반 9분 47초,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안정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또 그는 결승전에서 형인 손흥민에게 "나와! 나와!"라고 외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골을

자신의 실력으로 인증한 황의조

황의조 선수는 선발되고 난 뒤부터 계속 감독의 인맥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아시안게임의 사실상 결승전이라 불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날의 경기는 황의조로 시작해 황의조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치열한 역전의 재역전을 거치면서 점점 커져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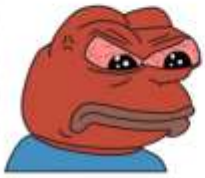
한 플로거는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을 인용하여 이번 우승을 표현했습니다.

히딩크 曰 **"축구장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 반말로 서로를 불러라."**

호칭은 곧 지위이고, 지위는 곧 위계가 되어 관료화로 이어지므로
창조적 발상과 지침없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히딩크 감독은 알고 있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해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세계적인 축구 무대에서
우승하기 힘들다는 점을 간파했다.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선배의 공을 가로채듯 슛을 날린 것으로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까?

Editor 강나영 rlaskdud112@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_조별 과제 편



우린 수많은 과제 더미에서 한 학기를 버텨낸다.
그리고 그중 가장 찬란하다는 조별 과제, 이름만 들어도 오한이 서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찾아온 이들에게 전한다.
바로 봐도, 모로 봐도, 뭐 같은 조별 과제를 조금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라 읽고 희망 사항이라 말한다)
대학생 과제의 시작과 끝은 조별 과제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건승하길 바라며 몇 가지 읊어보기로 한다.

1. 조장은 최대한 피하라.

조장이 되는 순간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회의 날짜를 최대한 양보하며 정해야 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자신은 응원담당을 하겠다는 이상하고 귀여운 조원을 만나면 그 역할도 자신이 감수해내야 한다.
위급상황에선 자신이 모든 걸 감수해내야 하는 이 위험한 역할은 되도록 피하자.
점수를 더 얻기 위해 조장을 하다간 질병을 얻기에 십상이므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조장을 하자는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당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면. 유감이다. 그저 잘 버텨내길)

2. 프리라이더를 만났을 때 갖추어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세상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다. 원래 대학교를 입학하면 별의별 유형의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그중 가장 이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프리라이더. 이들은 대체로 성격이 한없이 밝으며,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못하는 척을 할 수도 있다) 눈치 없는 행동과 발언으로 팀원들에게 해남 고구마를 열댓 상자씩 선물하기까지 이른다.
이들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보다 더한 '빙샹(빙그레 샹X)'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건 모두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없는 셈 치는 것이 정상혈압 유지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분통 터져도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내 성적도 망할 수는 없으니!)

3. PPT 역할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PPT를 자료 정리한 걸 요약만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며 쉽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PPT는 발표 직전까지 수없이 수정되고 수정되어 진다. 요약을 잘해서 잘 만들었다고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본인의 역할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왜 다른 사람의 노트북에

최종.zip, 최최종.zip, 마지막.zip, 진짜마지막.zip, 제발.zip의 파일명이 존재하는지. 사실 PPT는 센스가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의 방향과 흐름이 맞아 떨어져야 하며, 간결한 글과 픽토그램, 사진 등과 같은 보조 자료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자신이 평소 센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역할을 맡았다면, 디자인 사이트에서 색 조합 예시들을 참고하거나 픽토그램을 많이 활용하자.

그리고 글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4. 발표도 마찬가지.

발표는 모든 조원의 노력을 최종적으로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왜 많은 이들이 발표 울렁증을 들먹이며 피하려고 하겠는가. 그만큼 부담도 크고 질타와 공격적 피드백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PPT 제작 센스와 자료 검색 및 정리에 약하다면 발표도 괜찮은 대안으로 추천한다.

대본을 만들어 완벽히 숙지한다면, 당신이 싸워야 할 건 긴장감뿐!

5. 자료 정리는 다를 줄 알았니?

자료 정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물론 부담감은 다른 역할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곳곳에 퍼져있는 가짜 정보들과 알짜배기 정보들을 가려내고 검색해내는 일은 상당히 힘들다.
혹여나 논문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생각해본다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몇 배로 그 논문을 읽고 숙지해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자료들을 그대로 PPT 담당자에게 보내면 당신은 그의 원수가 되고 말 것.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관련 서적과 논문, 뉴스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다. 당신의 안구에 건승을 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식인과 블로그를 그대로 긁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6. 번호 교환은 피하자.

조별 과제의 마무리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문장으로도 번호 교환을 피하자는 것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겐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다.

사실 어떤 조별 과제든, 어떤 담당이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이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기본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대학교 4년 내내 조별 과제를 피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조금 덜 힘들어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성공해내자는 것.
그래도 역시 조별 과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임이 틀림없다. 당신의 건승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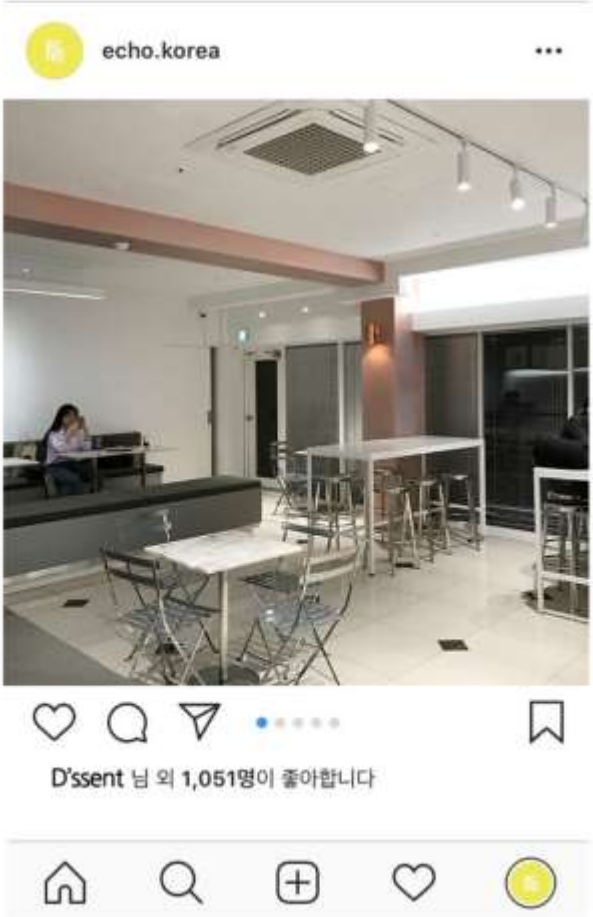
Editor 김가희 rlarkgmlek@naver.com | Designer 우해정 dngwjd17@gmail.com

카페 핫플 도장 깨기

도장 깨기란 유명한 무술 도장을 찾아가 그곳의 유명한 강자들을 꺾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요새에는 핫한 장소를 가보는 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되고 있다.

에코와 함께 카페 핫 플 도장 깨 보는 건 어떨까?



1. D'ssent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7매일 09:00 - 23:00〉

대구 동성로에 위치해있고 새하얀 건물이어서 밤에 지나가도

눈에 띄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이다.

가게는 2층으로 돼있지만 건물 높이가 높아 3층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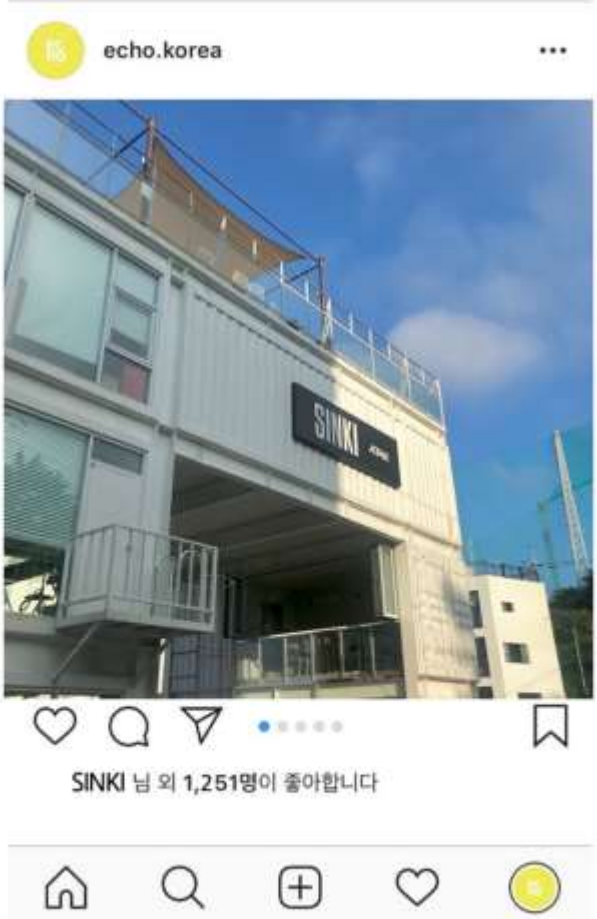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카페가 매우 넓다.

디센트의 시그니처 메뉴로는 디센트 라테와 디센트 오즈가 있다.

디센트 오즈는 딸기 요구르트 맛이라고 한다.

조명과 새하얀 배경 덕분에 사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인생 샷을 건지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신기산업

〈부산 영도구 와치로51번길 2매일 11:00 - 23:00Last order 22:00〉

카린 영도 플레이스 옆에 위치한 카페.

신기산업은 1987년 방울 공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신기 잡화점이라는 스토어와 카페, 펍을 함께 운영 중이다.

카린 영도 플레이스보다 부산항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멜론 소다+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의외로 신선한 조합이었다.탄산이 톡톡 튀면서

달달하니 먹어보는 것을 추천!

3. 카페 스토브 STOVE

〈대구 중구 동성로2길 12-34매일 12:00 - 22:30〉

스누피 와플과 앙버터로 유명한 카페. 카페는 2층부터 시작을 해 3층까지 있다. 하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매우 많다.

스누피 와플은 주문 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스누피 친구들 3명이 와플로 만들어져 나오고

딸기잼, 초코 등이 같이 나온다. 맛은 그냥 와플 믹스 맛.

예전부터 유명했던 앙버터! 앙버터는 과자 사이에 버터가 있고 팥 또는 말차를 선택할 수 있다.

과자를 한입 베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서 먹기 힘든 점 빼고는 먹어볼만했다.

스누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가보는 것을 추천!

스누피 와플에 음료 컵까지 모두 스누피로 도배돼서 나온다!

4. 카린 영도 플레이스

〈부산 영도구 청학동로 16평일 11:00 - 22:00월-목요일, 일요일 주말 11:00 - 23:00금요일, 토요일 명절당일 휴무1인 1메뉴, 노키즈, 노애니멀, 노스모킹 존〉

부산 영도에 위치한 카페. 영도를 간다면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 영도는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카린 영도 플레이스는 상가주택 전체를 카페와 카린 선글라스 쇼룸으로이루어져 있다. 매 층마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해 다른 카페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층 마다 방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았다. 층마다 커다랗게 창문이 있어 부산항 대교와 부산항을 시원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

시그니처 메뉴 중 는 스윗 루비 라떼는 히비스커스티를 우유에 우리고 얼음까지 히비스커스로 얼린 얼음이었다.

친구의 인생 라떼!

Editor 김가희 rlarkgmlek@naver.com | Designer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1. 대구 수성못

대구 두산동에 위치한 곳으로 수성못의 세 박자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놀 거리! 수성못 바로 옆 작은 놀이공원인 수성랜드가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큰 오산. 스릴 넘치는 바이킹으로 나의 발걸음이 자꾸 수성랜드로 향하네요..
두 번째 볼거리! 수성못에서 음악분수를 합니다. 9월, 10월 야간에는 20시, 21시에 각 30분간 2회 하니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먹거리! 수성못 앞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카페도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저녁 식사 후 수성못을 산책을 하고 마무리로
카페를 가면 수성못 완벽하게 클리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여름과 다른 선선한 바람과 달이 좀 더 일찍 뜨는 것을 보는 순간 아! 가을이 왔구나를 느낍니다.
가을에 좀 더 빠지기 위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밤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2. 대구 강정보 디아크

강정보 디아크는 색다른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강정보에는 유독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전동 스쿠터는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면
안 되니 이 점 유의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강정보에
위치한 신기한 건물은 디아크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복합문화공간입니다.
디아크에는 지하 1층에서 시작되며 상설 전시실을
포함해 세미나실, 다목적실, 영상존, 3층 전망대,
카페테리아 등이 있으니 일찍 가시는 분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산책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대구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치맥의 성지인 두류 공원 야외음악당입니다.
푸르른 잔디 위에 돗자리 하나 펴고 시원하게 밤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앞에 위치한 이월드의 83타워와 함께하면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4. 대구 옥연지 송해공원

우리가 아는 송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공원이 맞습니다.
왜 송해공원이냐면 옥연지 근처가 송해 할아버지의 처가 동네이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옥연지에 송해 공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옥연지 송해공원에서는 수중정자도 있고 생각보다 잘 꾸며져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산책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ditor 김윤지99dbswl@naver.com | Designer 이다혜 rkdi7724@naver.com

당신의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육상경기에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빠른 스피드로 달려 다른 선수들을 유도하는 선수를,
생물학적으로는 생체리듬을 조절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리드해나가는 요인을 말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리드해주는 무언가'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코와 함께 대표적인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반려견, 반려묘

어쩌면 반려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우울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반려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조금 아쉽지만 랜선 이모, 삼촌이 되면 됩니다!
@instagram_zzangjeolmi

2. 가족사진

아무래도 가장 큰 페이스메이커는 지갑 한 켠에 꼬옥 넣고 다니는 가족사진이죠.
꼭 가족사진이 아니더라도 친구, 연인, 가족 그 누구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의 사진이
야말로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게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3. 샤워 후 마시는 캔맥주

막 샤워하고 나온 향기롭고 보송보송한 상태로 마시는 캔 맥주는 그야말로 하루 동안의
피로를 싹 씻어주는 '소확행' 이죠. 여기에 좋아하는 드라마, 예능, 영화가 더해지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페이스메이커 완성입니다!

4. 장학금

뭐니 뭐니해도 머니죠! 한 학기동안의 고생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건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날아 들어온 장학금이 아닐까요?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한 핸드메이드 팩이다.
각자의 피부 고민에 맞춰 원하는 재료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단, 우리의 생각보다 피부는 더 예민하다. 천연재료라 해도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미리 소량으로 테스트해볼 것!
그리고 팩 후, 물세안만으로는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수도 있으니 꼭 클렌징제품으로 가볍게 세안해주어야 한다.

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팩 재료이다.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다.

계란 흰자 모공 축소와 미백에 효과가 있다. 여름철 늘어난 모공과 탄 피부를 재생시켜줄 좋은 재료이다.

오이 즉각적으로 수분을 충전시켜 피부의 온도를 낮춰준다. 화장 전에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에디터가 가장 추천하는 핸드메이드 팩 레시피

곡물가루 + 물 or 우유

= 피부결 개선, 각질 관리가 가능한 만능 팩.

녹차가루 + 물 or 꿀

= 모공정화, 붉은기 개선, 꿀로 보습까지!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매번 재료를 가져다 팩을 만드는 게 귀찮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시트팩으로도 간편하게 홈케어 할 수 있다.

더 이상 화장품 코너 한 구석을 차지하던 마스크 팩이 아니다.

1일1팩 열풍이 불면서 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사실!

시트의 종류, 효과까지 다양하지만 아무 팩이나 1일 1팩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고영양, 고보습의 마스크 팩으로 하는 1일 1팩은 자칫 피부에 과한 부담을 줘 트러블이 나거나 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제이준 뽑아쓰는 쏘쿨 마스크 30매 1만6천원

보검 선인장 추출물로 쿨링감과

간편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마스크 팩

장미 DAMASK ROSE
촉촉한 수분 + 매끈매끈 윤기 부여

촉촉한 수분을 머금은 장미가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부여해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주고, 거칠어진 피부를 매끈 매끈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메디힐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이엑스 3천원

엠플 한 병을 다 바른 듯한 수분감과

진정효과를 주는 마스크 팩

홀리카홀리카 퓨어 에센스 마스크시트 쉐어버터 1천5백원

매일 사용해도 적당한 영양과 보습효과로 환절기

메마른 피부를 윤기 나게 해주는 마스크 팩

Editor 우혜정 dngwjd17@gmail.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과한 무늬와 그렇지 못한 태도

애니멀 프린트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 강렬하게 스쳐 가는 단어가 있다.

'과하다'
'세다'
'촌스럽다'

쇼핑몰에서 예쁜 애니멀 프린트가 들어간 옷을 구매했지만 조금만 잘 못 입어버리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사두고도 옷장에 넣어두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한 강의실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실패는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실패를 성공으로 에코가 추천해주는 코디법과 함께 애니멀 프린트 옷을 꺼내보자

Editor 우혜정 dngwjd17@gmail.com | Designer 전명주 myeongju0510@naver.com

step 1. 우리 작은 거부터 시작하자

애니멀 프린트가 처음이라면 코디의 큰 부분이 아닌 작은 부분부터 키워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애니멀 프린트의 가방. 신발, 양말, 모자 등으로 가볍게 포인트를 주자!

step 2.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과한 거+과한 거=촌스러움이라 부른다. 애니멀 프린트의 스커트나 셔츠를 골랐다면

우린 가장 무난한 무채색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아마추어처럼 자신감이 붙었다고

원색 계열의 옷에 손을 뻗는 순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step 3. 판 좀 키워 볼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애니멀 프린트를 잘 적용해 왔다면 이제 대담해져도 된다!

우린 step 1, 2를 차근차근 밟아온 수강생이다! 애니멀 프린트의 코트, 원피스를 구매하자!

주저 말고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라! 장바구니에 담아 두는 것은 시간 낭비!

가장 시선이 많이 갈 수 있는 제품들을 애니멀 프린트로 정했기 때문에, step 2를 적용해서

무채색의 비율2:애니멀 프린트1의 황금 비율을 맞추자!

세 개의 스텝을 잘 밟아 왔다면 당신의 코디 점수는 A+이다!

이제 주저 말고 당신은 당당히 애니멀 프린트를 구매할 수 있다!

現像所

VOL.18

ECHO

디자인팀 모집 공고

2018년 2학기 ECHO 디자인팀 모집
ECHO와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모집 기간
9월 20 일 ~ 9월 27일

에코 편집장
010. 9352. 9951
[이름/학번]